

노동부-검찰, 산재 취약사업장 합동점검 실시

- 6월 한달 동안 전국 1,200여개 사업장에 대해

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,200여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.

이번 점검대상은, 예방관리 소홀로 산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산재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, 하절기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, 석면,

노말핵산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환경 불량 및 직업병 발생 우려 사업장 등이다.

그간 합동점검은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해왔으나 이번에는 특히, 최근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화재 및 붕괴, 감전 등의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및 작업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 할 계획이다.

한국산업안전공단, 30만개 사업장에 재해예방 포스터, 스티커 등 제공

-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 자료 무상 보급

한국산업안전공단(이사장 박길상)은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안전보건활동이 어려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30만개소에 책자, 포스터, 스티커 등 산재예방 자료를 제공한다.

지난해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의 71.6%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26,876명이 재해를 입어 전체 산업재해(90,147명)의 30%를 차지하고 있으며, 발생 형태별로는 감김이나 끼임으로 인한 사고(18.6%)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다음으로 전도, 추락, 충돌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에 따라 공단은 재해예방 책자 1종, 포스터 1종, 제조업 재해예방 스티커 3종, 건설업 재해예방 스티커 4종 등 총 9종을 제작해 보급한다. 제공되는 자료의 주요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감김이나 끼임, 추락, 충돌, 낙하 및 비래, 붕괴 및 도괴 등 5대 재해사례와 예방대책을 담고 있다.

이번 자료는 우편발송을 통해 사업장에 제공되며 공단 안전보건정보 온라인 사이트인 'Wish' (<http://wish.kosha.net>)를 통해서 'e-book'의 형태로 열람하거나 PDF파일로 받을 수 있다. ☺